

파손된 어은교 석달째 방치 '눈살'

덕진구, 보험사 보상 기다리며 임시방편 구조물설치

교통사고로 파손된 다리의 난간을 보수해야하는 덕진구청의 녹장행정에 전주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22일 전주천 서로에서 어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다리의 난간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로 다리 난간 일부가 부서졌다.

문제는 덕진구청이 어은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만 기다리며 임시방편으로 간이 철골 구조물만 설치, 땀질 처방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것.

실제 진북동 어은교는 다리를 건너 진북초등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사용되는데 교통사고로 부서진 다리 난간에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간이 구조물은 차량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 보여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진북동 주민 A(23·여)씨는 "흰한 대낮에야 눈으로 보이니까 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녁에 술 취한 성인의 경우 원래 설치된 난간보다 낮은 간이 설치물을 넘어 추락할 것 같다"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 달 넘도록 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주민들은 "교통사고로 다리 난간이 부서진 뒤 두 달이 넘도록 보험사의 손해배상만 기다린 덕진구청의 녹장행정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에 노출돼 있어 또 다른 사고가 이곳에서 발생되기전에 빠른 복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은교 간이 시설물을 설치한 건설관계자는 "안전상 사고 예방차원에서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이후 덕진구청에서 보수 계획에 대한 말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며 "언제 보수공사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렌터카라 해당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대물피해 손해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뒤늦게 보험접수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험사로 복구비를 청구할 계획이다"며 "어은교 난간을 생산하던 공장은 폐업한 상태이며 설치된 난간과 같은 제품은 나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주물형태를 만들어 비슷하게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완전 보수가 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아·태 도시관광진흥기구 포럼 개막 제7회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포럼이 14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77개 회원도시 및 38개 민간회원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수 시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아파트 배관 타고 여성 속옷 훔친 20대 검거

아파트 배관을 타고 넘어가 5층 베란다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방경찰서는 14일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여의동 한 아파트 5층 B씨의 집 베란다에서 브래지어 1점(시가 1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결과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A씨는 이날 B씨의 아파트 베란다 열려진 창문 사이로 브래지어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간 A씨는 계단 창문을 통해 아파트 벽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으로 들어가 브래지어 1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수 기자

'공사비리 의혹' 부안군 압수수색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부안군이 발주한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 관련 서류 및 담당자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상수도 공사 비리에 전임 군수 등과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주 기자

마을 이장 흥기 살해 40대 검거

마을 이장과 술을 마시고 싸우다 흥기로 찔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7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치킨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이장 A(51)씨를 흥기로 찔러 혐의(살인)로 주민 B(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가슴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휘두른 흥기에 크게 다쳐 평상에 쓰러져 있던 A씨는 문을 닫기 위해 가게 밖으로 치킨 가게 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

장모 밀쳐 다치게 한 사위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장모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1시5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장모를 밀어 바다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그는 "장모를 넘어뜨린 일이 없고, 장모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지다가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용주 기자

전국건설노조, 공안탐압 규탄 기자회견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공안탐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했다더니 공갈협박이라고 비판한다"며 "노조가 노동 3권을 요구하면 공갈 협박이고 안전한 공사 현장을 요구하면 폐업한다"고 물고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6만 조선업 실직자들의 고용 대책을 쏟아내면서 200만 비

정규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책은커녕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나서서 채용을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일거리를 주지 않는 데 손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목적을 높였다.

노조는 또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6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집결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수 기자

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광고 업자 16명 입건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허위로 과장광고, 25억여원의 홍삼 제품을 팔아 생긴 속칭 '똥다방'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14일 노인들에게 일반 홍삼제품의 효능을 허위로 과장광고,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관매장사 권모(48)씨를 구속하고 사장 이모(67)씨 등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안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4000여명을 상대로 "황칠홍삼을 먹으면 위와 간에 좋고, 당뇨 및 혈액 순환도 잘된다"고 허

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25억3000여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체 사장 이씨는 지역 농협과 OEM방식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한 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진안 마이산 등을 찾은 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홍보와 판매, 모집,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농협에서 나왔는데 설명만 들어도 선물을 준다"고 노인들에게 접근해 비싼 값에 홍삼을 팔아왔다.

/안진수 기자

노인학대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3818건 발생 전년보다 8.1% ↑

급속한 노령화와 더불어 가정 내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사건은 전년보다 8.1% 증가한 38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 1905건으로, 전년 대비 1만569건보다 12.6%가 증가했다.

특히 노인학대는 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친족에 의한 학대, 가정내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 노인학대 3818건 중 2330건으로 37.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신체적 학대가 1591건으로 15.4%, 방임의 경우 919건 14.9%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집계됐다.

의외로 밥을 먹지 않거나 집안을 치우지 않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학대한 사건이 14.7%로 뒤를 이었으며, 기관

에 의한 학대는 9%, 타인 6.7% 순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5.4%, 병원 내 학대가 2.3%로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많았고,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가 34.5%로 자녀동거가구 26.7%, 노인부부가구 21.2% 보다 많았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과 노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노인 간 학대 사례도 전년보다 12.8% 증가해 1762건 발생했다.

이 같은 노인학대 증가 현상의 원인은 노인의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된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